

대전매봉중 김연우, 전국펜싱대회 정상 등극

소녀검객 금 절렀다! 대전 펜싱부 육성학교 전성시대 열려



대전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충북 의림지다목적체육관에서 펼쳐진 제59회 전국남녀종별펜싱대회에서 대전매봉중 김연우(3학년)가 여자중학부 사브르 개인전 정상에 오르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린 만큼 경기장 내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철저한 방역을 이룬 채 이뤄졌다.

대전매봉중 김연우(3학년)는 사브르 개인 본선 토너먼트 경기에서 32강전 박예연(익산지원중) 15:6, 16강전 이주은(대구매호중) 15:12, 8강전 정수현(경북체중) 15:7, 4강전 이정화(서울체중)를 15:8로 꺾고 파죽지세로 결승에 진출, 우승후보로 평가

받던 서지수(익산지원중)를 15:8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또한 여자중학부 에페 단체전에서 대전문정중이 3위에 입상했으며, 에페 개인전에서 허세은(대전문정중) 2위, 송제현(대전탄방중) 3위에 입상하며, 펜싱 종목이 대전의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민준 기자

진천고, 온·오프 체육 대회로 코로나 블루 극복



진천고등학교(교장 이덕찬)가 온오프라인 체육대회를 개최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있어 화제다.

종목별 참가 선수들은 체육관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다른 학생들은 학급에서 경기를 관람하면서 응원을 펼치는 방식이다.

온오프라인 체육 대회는 지난달 29일부터 14일까지 체육 수업 시간을 활용해 학급 대항 토너먼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종목 경기는 실시간으로 학급에 방송 송출되며, 학생들은 교실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응원한다.

담당교사는 학교 스포츠 알리미(<https://bit.ly/진고스포츠>)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 및 중계 방송 일정을 게시해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응원에 참여한 학생은 “함께 모여 경기를 관람할 수는 없지만, 언택트 시대에 부합되는 응원을 하며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어 신났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되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이덕찬 교장은 “실시간 중계 방송으로 운영되는 2021학년도 체육 한마당을 통해 마스크 속에 갇힌 학생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병중 기자

남신초, 창의융합 메이커 페어 운영

음성 남신초등학교(교장 이혜숙)는 남신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남신초, 창의융합 메이커 페어’를 진행했다.

‘남신초, 창의융합 메이커페어’는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의 융합교육(STEAM)에 메이커 교육을 연계해 진행했다.

1~2학년은 부엉이 윈드벨,꿀벌 양초 만들기, 트리플 스피너 등, 3~4학년은 LED 오펝이 메모꽃이, 핸드선 풍기, 자이로 팽이 등, 5~6학년은 미니가든 테라리움, 오토마타 원숭이, 태양광 자동차 등 학년별로 다양한

메이커 체험부스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메이커페어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어릴 때부터 만들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메이커 페어 행사를 우리 학교에서 체험하게 되어 정말 재미있었고 큰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혜숙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창의융합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고 학부모 및 교사 발명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및 발명교육의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섭 기자

아산교육지원청, 야생화와 무궁화 정원 조성

야생화와 무궁화 정원 조성으로 생태교육 및 애국심 고취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희)은 그 동안 수풀과 잡목들로 우거져 있던 울타리박 공터를 깨끗이 정비하고, 무궁화 정원과 야생화로 가득한 꽃동산을 조성했다.

이번 조성된 무궁화 정원은 120주의 무궁화를 다양한 조화류 및 야생화와 함께 식재하고, 안내판 설치 등 마치 정원처럼 조성됐다. 또 한 무궁화 정원에는 나라꽃 무궁화 바로 알기 안내판이 잘게시되어 있어 아산교육지원청의 진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무궁화 정원 조성은 반만년 역사 동안 민족과 함께 해온 겨레의 꽃으로 과거의 아픔을 깨끗하게 이겨낸 나라의 무궁화 꽃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구성원들의 관심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해 추진 됐다. 또, 정원 입구에 민원인들이

쉽게 아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입간판을 세워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이문희 교육장은 “이번 무궁화 정원 조성으로 아산교육공동체에 게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렸던 애국의 정신이 우리나라꽃 무궁화와 함께 활짝 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7~10월 사이 100일 정도 계속해서 무궁화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 속에 애국심이 저절로 일어날 것만 같으며, 아산교육지원청에 심어진 무궁화 나무가 널리 퍼지는 그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조성현 기자

예산 고덕중, 다양한 한글 사랑 프로그램 전개

내가 던진 톱 하나, 누구에겐 돌 하나



고덕중학교(교장 석동휘)에서는 지난 17일 학생자치회 학예부원들이 학생들의 등교길에 한글사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덕중학교는 2021년 충청남도교육청 한글사랑 이공학교로 선정되어 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학생들과 함께 한글 사랑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3학년 학예부장 배모

양은 “저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저도 모르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편인데, 막상 제가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다보니 제 언어 습관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6월에는 국어시간을 활용해 고덕 시내 간판을 조사해 외국어나 외래어로 표기된 것들을 순 우리말로 바꾸는 수업도 기획하고 있다.

/최용관 기자

충남예술고, ‘튤립 친구사랑’ 사진전 개최

봄과 함께 열린 학급 사진전으로 인성함양 도모

충남예술고등학교(교장 심상희)는 아름다운 교정에서 친구사랑 및 우정을 다지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튤립 친구사랑’ 학급 사진전을 진행했다.

이 사진전은 충남예술고등학교의 교육 비전인 재능과 인성을 겸비한 덕승재(德勝才)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안전생활부와 학생자치회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행사로 당일의 전시뿐 아니라, 전시 준비를 위한 과정이 뜻깊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는 학급별 친구사랑 나눔 릴레이 사진촬영을 통해 소외된 친구들 없이 함께하며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한 1학년 학생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다소 어색했던 친구들도 이번 사진촬영을 통해 가까워졌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함께하는 ‘학급 게시판 꾸미기’활동을 통해 평소 안내문 일



색이었던 학급의 게시판 등 학급환경을 개선하고 반별 단합력을 제고하는 시간이 됐다.

2학년 3반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사진전을 진행할 게시판에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배치하며 꾸미는 모습을 보며, 수업 때는 알 수 없었던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기회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수정초, 스포츠클럽 대회 열려

1주간의 스포츠클럽 대회로 코로나 블루 날려요

수정초등학교(교장 천영자)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수정 어울터와 운동장에서 3~6학년이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대회를 열었다.

이번 스포츠클럽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 신체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만큼 학생들의 스포츠 레저 활동의 중요성 증대 및 올바른 여가 활용을 위해 진행됐다.

일주일 간 축구, 종이비행기 날리기, 자유투 시합 등의 경기가 열렸다. 학년별로 신체 능력의 차이가 큼을 고려해 일부 종목은 3~6학년이

적절히 섞인 무학년 ‘다모임’팀으로 운영,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우승 상과 함께 협동상, 페어플레이상도 함께 수여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돕기도 했다. 5학년 이진석 학생은 “코로나로 실내에만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소감을 말했다.

천영자 교장은 “이번 스포츠클럽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신체활동으로 끼를 발산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성진 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무업무지원팀 운영 논의

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 T/F팀 5월 정기 협의회 실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구) 학교지원센터는, 10여명의 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 T/F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정기 협의회를 실시했다.

위원장인 논산동성초등학교 이해경 교장을 비롯한 각 급 학교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행정실장, 업무 담당 장학사 및 주무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각 학교 교무업무지원팀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관내 모든 학교에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해 교무업무지원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감, 부장(비담임)교사, 교무행정지원인력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지원팀을 구성, 공문서 작성, 행정업무, 통계 처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교마다 그 운영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진구 교육장은 “단순히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문성과 학교 교육력을 신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교무업무지원팀 컨설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지철 기자

보령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동행 멘토링’ 실시

교육활동 전문가와 신규교사를 잇다

보령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교육장 서정문)는 지난 13일 청파초를 시작으로 ‘동행 멘토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행 멘토링’은 교육활동 전문가와 신규교사를 멘토와 멘티로 이어주어 공감과 소통, 고민 나누기를 통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학교지원센터의 신규교사 지원 프로그램이다.

13일 청파초 교실에서 신규교사와 초등수업지원단 임은주 멘토(대전초)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임은주 멘토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준비해 온 분홍 카네이션과 교직생활의 생생한 경험담으로 몽글몽글 감동을 주었다.

14년차 선배교사가 말해주는 ‘라떼 이야기’는 이제 막 두어 달을 지내 온 신규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고민을 선행의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었다.



서정문 교육장은 “교육활동 전문가 양성을 지난 해 보령교육지원청이 주력해왔던 역점과제 중 하나였다. 그 결실이 신규교사 멘토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감사하다”라고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임종복 기자